

반딧불축제에서 만나는 전통놀이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무주 안성 남대천서 낙화놀이·씻다리 등 진행

무주사람들이 들려주는 무주이야기는 무주반딧불축제의 큰 매력으로 특히 낙화놀이와 씻다리, 기질놀이, 디딜방아맥아미 놀이, 솟대세우기 등 전통놀이 한마당은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인기다.

23회 축제에서는 개막일인 31일부터 폐막일인 9월 8일까지 남대천에서 방문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제56호 낙화놀이(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들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31일, 9월 1일, 9월 6일, 9월 7일, 남대천)는 안성면 주민(금평리 두문마을 낙화놀이 보존회)들이 지난 12회 축제 때부터 재연하고 있는 전통 불꽃놀이로, 줄을 맨 긴 장대에 한지에 싼 뽕나무와 숲, 소금뭉치(100~200개 정도)를 달아 불을 붙이면 활날리는 불꽃들이 대금의 선율과 어우러져 감동을 준다.

10회 축제를 계기로 메인 프로그램이 된 씻다리 밟기(31일, 9월 1일, 9월 7일, 9월 8일, 남대천)는 전통혼례와 상여행렬을 재연하는 것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씻다리를 건너볼 수도 있다. 통나무와 솔가지를 이용해 가교를 놓는 씻다리는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 CNNgo가 한국에서 꼭 가봐야 명소 50곳으로 선정해 더욱 유명해졌다.

기(旗)질놀이(31일, 남대천)는 무풍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놀이로 뒀마을과 아랫마을이 마을의 상징인 농기(旗)로 세배를 주고



무주반딧불축제에서 개막일인 31일부터 폐막일인 9월 8일까지 남대천에서 방문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받으며 화합을 다졌던 놀이를 재연한 것. 힘차게 필러이는 기질의 위용과 농악대의 흥이 어우러진 기(基)질놀이는 13회 축제 때부터 선보이고 있다.

솟대세우기(남대천)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산의실 솟대세우기는 8월 31일 오전 예천문화관 반디광장에서 진행된다. 무주농악보존회 공연은 8월 31일과 9월 1일, 8일 씻다리 시연과 함께 남대천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이 전승해 오고 있는 디딜방아 맥아미놀이(9월 4일, 남대천)는 무병장수와 풍

년을 기원하던 거리기원제로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춤과 제와 농악놀이를 선보이는 모습이 흥겹다. 제41회 한국민속예술 축제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수작이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 김병욱 총괄예술 팀장은 "각 읍면을 대표하며 주민들이 재연하는 전통놀이들은 이제 무주반딧불축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반딧불축제가 전통놀이로 무주도 알리고,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계기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축제 성공 개최 준비 박차

실무추진단 1차 보고회

진안군은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29일 실무추진단 추진상황 1차 보고회를 가졌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과 부읍면장 41명으로 구성됐다.

진안홍삼축제의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과 정부 유망축제 진입을 목표로 팀장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부터 진행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보고회는 각 프로그램 별 추진상황과 추진에 따른 예상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축제방문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

/진안=우태만 기자

들이 오갔다. 앞으로 축제까지 42일 남은 가운데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노력하여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성용 단장은 "2019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더욱 풍성하고 발전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7월부터 700여 명의 공직자는 물론 관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홍삼을 의미하는 빨간 단채터를 입은 'Red-day'를 운영하며 홍삼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진안홍삼축제는 한글날인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역 매 아리

진안 농민회 가족한마당 '성황'

진안군 농민회(손경중) 가족한마당 대회가 29일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회원, 회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동문화전수관에서 열렸다.

가족한마당 대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농민회 가족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손경중 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기 위해서 농민공익수당 도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며 "사람중심·농민중심의 농촌이 되도록 회원들이 힘을 합쳐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우리 농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분들이 우리 농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명품 장수한우, 축제장서 10% 할인 판매

인근 대형마트 대비 35% 저렴

오는 9월 6~8일까지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3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장에서 장수한우가 관내 시중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장수군은 지난 28일 장수군한우협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한우마당 정육판매 및 채소 등 가격결정 최종 회의를 열고 한우마당 정육판매 가격은 관내 판매업체 가격대비 10%, 장수군 인근 대형마트 대비 35%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우가격 상승에 따른 정육 판매기관의 애로사항과 의견 청취, 한우마당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회의에 참여한 한 업체관계자는 "최근 한우 가격이 전년대비 15%정도 상승해 구입용 주용 정육 판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수 한우의 맛을 느끼고 장수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우마당 정육판매 가격을 주변 판매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했으니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장수한우의 맛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장수한우마당을 찾는 관광객이 저렴하게 장수한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협조를 바란다"며 "장수 한우 발전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D 축제의 밤, 장수에 월드스타 뜬다

내달 6일부터 3일간 '장수 락 페스타' 개최... 입장권 인터넷 예매 진행 중

뜨거운 여름에서 시원한 가을하늘로 넘어갈 무렵, 청정지역 장수에서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Red컬러로 빛나는 화려한 축제가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르고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의 협소한 메인무대를 종합운동장 내부를 옮겨 화려하고 대규모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장수의 대표 농·특산물인 가득한 Red 및 우수 농·특산물 상품점이 의암공

원 잔디광장에서 운영된다.

가장 큰 이슈는 축제 2일차에 진행되는 장수 락(樂) 페스타로, 9월 7일 저녁 7시 장수군 의암공원 한누리 종합운동장 메인무대에서 장수 레드의 열정을 담은 가수 싸이(PSY)가 출연, 장수의 밤을 뜨겁게 불태운다.

외에 래퍼 면도, 블랙나인, 최서현, 색소폰니스트 고민석 등 유명 가수가 출연한다. 장수 락 페스타 무대는 약 1만2000여명이 입장 가능한 규모이며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 입

장권 예매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http://itempia.co.kr)를 통해 예약 접수 중에 있다. 입장권은 예매 시 현장수령, 우편발송으로 선택 가능하며 우편 발송은 지난 23일까지 구매한 예매자에 한해 일괄 배송된다. 이후 예매자부터는 현장수령만 가능하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남원/전주방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입장권 예매 시 선택사항으로 구매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천천작은도서관 시범 9월 2일 운영

장수군, 10월 정식 개관

장수군이 주민의 교육 문화 공간인 천천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9일 장수군에 따르면 천천 작은도서관은 (구)농업인상담소 공간 리모델링으로 조성돼 본관 1층 90.72㎡ 규모다.

도서관은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코너, 안내데스크 등이 위치하고 유아도서부터 성인도서까지 이르기까지 1547권의 양질의 장서가 구비돼 군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식 개관은 10월이다.

장영수 군수는 "천천 작은 도서관은 독서놀이공간,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현재 장수읍, 반암면, 장계면, 계북면 등 4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6,32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